

돌려주어 후손에게 경사를 도탑게 하였고다. 내 명이 심히 컸으니 천세도록 밝게 보이리라.

통훈대부전행흥문관부교리지제교 첨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첨

서학교수 여강 李中久 근찬

文巖公墓碣銘

竝序

丁寢郎奎集訪余而言曰吾六世祖文巖公早以經學行誼聞于鄉又嘗留心當世之務欲以有爲而命不偶占司馬不入于仕遂復閉門潛居著書萬餘言題之曰漆室空談有欲考究公之蘊者庶其在此殘裔等始於近歲取詩文藁繡梓而附刊焉獨墓隧尙欠來後昭示之圖惟下執事垂惠以銘石具矣敢請中均竊自概念公之世 朝廷公卿大夫無舉而薦之者故不克施用寒賤之文又何能爲公後圖雖然請若是懇不可辭謹按丁氏羅州之